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12 pp. 742-751,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12.74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미애[1], 권진희[2*]
[1]영광기독신병원, [2]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Psychiatric Health Nurses'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erformance

MI-Ae Jo[1], Jin Hee Kwon[2*]
[1]Yeonggwang Christian Sinha Hospital
[2]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 및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7개 정신병원에서 정신간호사 20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program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와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는 정신간호역량(r=.57, p<.001), 자기효능감(r=.6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은 자기효능감(β=.55, p<.001), 정신간호역량(β=.21,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3.4%이었다. 따라서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꾸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was undertaken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performance and psychiatric health nurse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and self-efficacy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erformance. The study was conducted on 203 psychiatric health nurses working in 7 different psychiatric hospitals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J-do,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and one-way ANOVA in SPSS/WIN 26.0 an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and nursing performance (r=.57, p<.001) and self-efficacy (r=.68, p<.001). The factors found to influence nursing performance were self-efficacy (β=.55, p<.001) and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β=.21, p=.001), and these had an explanatory power of 53.4%. Intervention programs and continued education aimed at improving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and self-efficacy should be considered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Keywords : Mental Health, Psychiatric Health Nurses,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Self-efficacy, Nursing Performance

본 논문은 제 1저자 조미애의 석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
*Corresponding Author : Jin Hee Kwon(Gwangju Health University.)
email: gnygny7007@ghu.ac.kr
Received October 4, 2023 Revised October 31, 2023
Accepted December 8, 2023 Published December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 전문화를 통한 질적 향상과 함께 정신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관심,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다[1]. 정신질환은 인간의 사고, 정서, 지각, 행동,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2],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3]. 또한, 한 번 발생하면 재발이 반복되면서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이 야기된다[4].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내포한 대상자와 많은 시간을 접하는 정신간호사는 망상, 환청, 공격행동,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 정신질환의 증상들을 다루고, 증상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사회재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정신간호사는 환자에게 공감적으로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하며[5], 정신질환자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 사용하도록 훈련받고 있다[6]. 그러므로 정신간호사는 간호 실천능력인 정신간호역량과 자신의 내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7].

정신간호역량은 대상자를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인 총체적 존재로 인식하여 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사정하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신과적 치료를 권장하는 중재 및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8]. 한정원, 이한나 및 우희영[9]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 간호사의 정신간호에 대한 역량을 측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량은 정신간호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간호업무성과로 나타날 수 있다[10].

정신간호의 핵심적인 부분은 간호사-대상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치료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대상자 관계에서 정신간호사는 스스로를 치료적 도구로써 자신을 활용해야 하며 끊임없이 내적 자원을 개발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역량이 필요하다[11].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정신간호사의 상황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써 어떠한 결과와 성과를 얻기 위해 개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정서를 의미한다[12]. 자기효능감은 간호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간호업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13]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14].

한편, 간호업무의 질적인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생산성과 양질의 간호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역량을 개발하고 육성시킨다면 질적인 환자간호와 간호업무성과의 증진 및 간호조직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15]. 또한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사의 역량 및 자아개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향상되며, 간호업무, 실무와 간호업무 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16]

지금까지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구들 중 정신간호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는 간호전문직관이 정신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연구[17], 자신감과의 관련 연구[18], 일반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과 간호부담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 등[19,20]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업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21],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도[22], 업무스트레스 및 대처유형[23] 관련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간호업무성과에 관한 연구는 의사소통능력[24],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및 공감역량[25], 직무만족도[26], 환자안전관리 활동[27] 연구 등 변인들 각각의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 및 간호업무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어서 정신간호사의 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 및 간호업무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 및 간호업무성과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자기효능감 향상과 간호업무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여 양질의 간호제공 및 병원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가. 대상자의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성과의 정도를 파악한다.

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다. 대상자의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라.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 및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 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7개 정신병원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모집 공고문을 통하여 정신병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8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간호사에게 연구보조자가 직접 설문지를 제공하였으며, 서면을 통하여 동의를 받고, 설문 작성 중이거나 작성 후 연구참여 철회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수용 봉투에 넣어 봉인된 상태로 수거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7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했을 경우, 효과크기는 중간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일반적 특성 10개(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 직급, 총 임상 근무경력, 정신과 근무경력,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 독립변수 2개(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84명의 표본수가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0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불충분한 응답 2부를 제외한 20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정신간호역량

정신간호역량은 Rutledge et al.[8]이 개발한 행동건강관리역량도구(Behavioral Health Care Competency; BHCC)를, 장미영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도구[20]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사정역량 7문항, 중재역량 7문항, 정신과적 권고 5문항, 자원의 활용역량 4문항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Rutledge et al.[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78~.91이었고, 장미영[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2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 Maddux[18]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정애순[26]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Sherer & Maddux[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71이었고, 정애순[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4이었다.

2.3.3 간호업무성과

간호업무성과는 고유경, 이태화, 임지영[2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간호업무 수행능력 7문항, 간호업무 수행태도 4문항, 간호업무 수준향상 3문항, 간호과정 적용 3문항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고유경 등[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84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 및 간호업무성과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 간호업무성과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22년 8월 N대학의 IRB 심의(1041478-2022-HR-017)를 통과 후 시행되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71명(84.2%), 남성은 32명(15.8%)이었다. 연령은 평균 39.25±11.42세로 30세 이하 66명(32.5%), 41세~50세 47명(23.1%), 51세 이상 46명(22.7%), 31세~40세 44명(21.7%)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 112명(55.2%), 미혼 91명(44.8%), 종교는 유 104명(51.2%), 무 99명(48.8%)이었다. 교육정도는 학사 139명(68.4%), 전문학사 32명(15.8%), 석사이상 32명(15.8%)이었다. 직급은 일반간호사 148명(72.9%), 수간호사 이상 30명(14.8%), 책임간호사 25명(12.3%)이었다. 총 임상 근무경력은 평균 12.44±10.39년으로 15년 이상 75명(36.9%), 5년 미만 65명(32.0%), 5년~15년 미만 63명(31.1%)이었다. 정신과 근무경력은 평균 10.33±9.72년으로 5년 미만 84명(41.4%), 5년 미만~15년 미만 60명(29.5%), 15년 이상 59명(29.1%) 이었다.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은 유 112명(55.2%), 무 91명(44.8%), 간호직 만족도는 평균 3.60±0.73점으로 만족 117명(57.6%), 보통 75명(37.0%), 불만족 11명(5.4%)이었다(Table 1).

3.2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 간호업무성과 정도

정신간호역량은 5점 만점에 3.78±0.41점으로, 하위영역 중 자원의 활용역량 4.06±0.55점, 사정역량 3.84±0.45점, 중재역량 3.76±0.48점, 정신과적 권고 2.97±0.94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84±0.48점이었다. 간호업무성과는 5점 만점에 3.96±0.50점이으로, 하위영역 중 간호업무 수행태도 4.01±0.53점, 간호업무 수행능력 4.01±0.50점, 간호업무 수준향상 3.91±0.61점, 간호과정 적용 3.86±1.07점이었다(Table 2).

Table 1. Difference of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3)

Variable	Categories	n(%)	Mean±SD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Self-efficacy		Nursing Performance	
				Mean±SD	t/F(*p*) Duncan Test	Mean±SD	t/F(*p*) Duncan Test	Mean±SD	t/F(*p*) Duncan Test
Gender	Male	32(15.8)		3.82±0.42	0.67 (.502)	3.85±0.56	0.12 (.902)	3.91±0.54	-0.68 (.499)
	Female	171(84.2)		3.77±0.41		3.84±0.47		3.97±0.49	
Age	30≥[a]	66(32.5)	39.25±11.42	3.74±0.35	3.47 (.017) a,b,c<d	3.87±0.51	1.59 (.192)	3.87±0.49	2.27 (.081)
	31~40[b]	44(21.7)		3.72±0.43		3.70±0.46		3.89±0.39	
	41~50[c]	47(23.1)		3.72±0.43		3.85±0.50		4.04±0.56	
	51≤[d]	46(22.7)		3.95±0.43		3.91±0.45		4.08±0.53	
Marital status	Married	112(55.2)		3.85±0.43	3.07 (.002)	3.85±0.45	0.30 (.762)	4.06±0.50	3.04 (.003)
	Single	91(44.8)		3.68±0.37		3.83±0.52		3.85±0.49	
Religion	Yes	104(51.2)		3.86±0.43	3.08 (.002)	3.91±0.47	2.12 (.035)	4.02±0.45	1.74 (.083)
	No	99(48.8)		3.69±0.37		3.76±0.49		3.90±0.55	
Education level	3-year diploma[a]	32(15.8)		3.72±0.43	4.89 (.008) a,b<c	3.69±0.50	4.07 (.019) a<c	3.89±0.57	1.89 (.154)
	Bachelor's[b]	139(68.4)		3.74±0.40		3.83±0.47		3.94±0.48	
	≥Master's[c]	32(15.8)		3.98±0.42		4.02±0.46		4.11±0.49	
Position	Staff N.[a]	148(72.9)		3.70±0.40	10.98 (<.001) a<b,c	3.81±0.49	1.14 (.321)	3.89±0.47	6.62 (.002) a<b,c
	Charge N.[b]	25(12.3)		3.93±0.42		3.84±0.46		4.13±0.64	
	Head N.≤[c]	30(14.8)		4.03±0.33		3.96±0.44		4.19±0.41	
Years of clinical experienc(y)	5>[a]	65(32.0)	12.44±10.39	3.66±0.38	6.52 (.002) a,b<c	3.85±0.47	0.74 (.478)	3.86±0.48	7.02 (<.001) a,b<c
	5~15[b]	63(31.1)		3.75±0.39		3.78±0.49		3.87±0.45	
	15<[c]	75(36.9)		3.90±0.43		3.88±0.49		4.13±0.51	
psychiatric work experienc(y)	5>[a]	84(41.4)	10.33±9.72	3.66±0.38	12.62 (<.001) a,b<c	3.83±0.47	1.28 (.281)	3.84±0.46	7.92 (<.001) a,b<c
	5~15[b]	60(29.5)		3.73±0.39		3.78±0.48		3.94±0.51	
	15<[c]	59(29.1)		3.99±0.41		3.92±0.50		4.17±0.49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license	Yes	112(55.2)		3.89±0.41	4.75 (<.001)	3.88±0.49	1.54 (.126)	4.08±0.50	3.71 (<.001)
	No	91(44.8)		3.63±0.38		3.78±0.47		3.62±0.47	
Nursing job satisfaction	Dissatisfaction[a]	11(5.4)	3.60±0.73	3.74±0.49	9.01 (<.001) b<c	3.61±0.70	20.08 (<.001) a,b<c	3.87±0.65	12.43 (<.001) b<c
	Usually[b]	75(37.0)		3.63±0.34		3.61±0.44		3.76±0.44	
	Satisfaction[c]	117(57.6)		3.88±0.43		4.01±0.42		4.10±0.48	

Table 2. Level of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N*= 203)

Variable	Mean±SD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3.78±0.41
Assessment competency	3.84±0.45
Intervention competency	3.76±0.48
Recommendation for use of psychoactive drugs	2.97±0.94
Resource adequacy competency	4.06±0.55
Self-efficacy	3.84±0.48
Nursing Performance	3.96±0.50
Nursing performance ability	4.01±0.50
Nursing performance attitude	4.01±0.53
Nursing work level improvement	3.91±0.61
Application of nursing course	3.86±1.07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 간호업무성과의 차이

정신간호역량은 연령(F=3.47, p=.017), 결혼상태(t=3.07, p=.002), 종교(t=3.08, p=.002), 교육정도(F=4.89, p=.008), 직급(F=10.98, p<.001), 총 임상 근무경력(F=6.52, p=.002), 정신과 근무경력(F=12.62, p<.001),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t=4.75, p<.001), 간호직 만족도(F=9.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종교(t=2.12, p=.035), 교육정도(F=4.07, p=.019), 간호직 만족도(F=20.08,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업무성과는 결혼상태(t=3.04, p=.003), 직급(F=6.62, p=.002), 총 임상 근무경력(F=7.02, p<.001), 정신과 근무경력(F=7.92, p=<.001),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t=3.71, p<.001), 간호직 만족도(F=12.4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3.4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 간호업무성과 간의 상관관계

정신간호역량은 자기효능감(r=.53, p<.001), 간호업무성과(r=.5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은 간호업무성과(r=.6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N*=203)

Variable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Self-efficacy	Nursing Performance
	r(p)	r(p)	r(p)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1		
Self-efficacy	.53(<.001)	1	
Nursing Performance	.57(<.001)	.68(<.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Performance.

(*N*=203)

Variable	B	SE	β	t	p	VIF
(Constant)	0.92	0.28		3.24	.001	
Maritalstatus(Single)†	-0.10	0.06	-.10	-1.60	.110	1.714
Position(Charge N)†	0.09	0.08	.06	1.12	.264	1.268
Position(Head N.≤)†	-0.01	.09	-.01	-0.09	.931	1.614
Years of clinicalexperience (yr)(5))	-0.08	0.14	-.08	-.0.59	.555	7.742
Years of clinicalexperience (yr)(5~15)	-0.17	0.11	-.16	-1.63	.106	4.187
psychiatric work experience (yr)(5~15)	0.03	0.10	.03	0.29	.775	3.543
psychiatric work experience (yr)(15<)	-0.06	0.10	-.06	-0.64	.708	7.138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s license†	0.08	0.07	0.08	1.184	.238	1.970
Nursing job satisfaction(Dissatisfaction)†	0.12	0.12	.06	1.06	.292	1.209
Nursing job satisfaction(Usually)†	-0.02	0.06	-.02	-0.27	.791	1.335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e	0.26	0.08	.21	3.34	.001	1.732
Self-efficacy	0.57	0.06	.55	8.98	<.001	1.641

†: Dummy Variable R^2=0.56, Adj-R^2=0.53, F=20.30, p<.001, Durbin-Watson=2.097

3.5 간호업무성과 영향요인

정신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이 간호업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 간호업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결혼상태, 직급, 총 임상 근무경력, 정신과 근무경력,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간호직 만족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결혼상태, 직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에서 각 종속변수에 유의한 관계성을 보인 변수인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예측요인은 자기효능감(β=. 55, p<.001)이었고, 정신간호역량(β=.21, p=.001) 순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설명력은 53.4%이었고, 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0.30, p<.001)(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 수준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간호업무성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정신간호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78점이었다. 이는 정신간호사 대상의 선행연구[17]와 일반 간호사 대상의 연구[19,20]보다 다소 높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정신간호사의 총 임상 근무경력과 정신과 근무경력이 많고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가 많아 풍부한 임상현장 경험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하고 있어 정신간호역량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정신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84점이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29] 3.82점,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 연구[30] 3.77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간호업무성과는 5점 만점에 평균 3.96이었다. 선행 연구[25,27]의 3.73점, 3.74점보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업무성과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동일한 도구로 일반간호사의 연구[29]에서는 3.14점서는 3.1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간 규모와 간호사 업무의 숙련성과 전문성 등 간호사의 자질이나 역량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여 간호업무성과에서 차이가 남을 보고한 결과[31]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성공적인 간호업무성과는 간호지식과 임상적 판단능력, 스트레스 대처상황, 효과적이고 안전한 간호제공 등의 대인관계 기술로 정신간호사는 간호업무성과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간호과정 적용을 위한 간호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간호업무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32].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역량은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정도, 직급, 총 임상 근무경력, 정신과 근무경력,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간호직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은 51세 이상, 기혼, 종교가 있는 경우, 석사 이상,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 이상, 총 임상 근무경력이 15년 이상, 정신과 근무경력 15년 이상,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간호직 만족도는 만족의 경우 정신간호역량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20], 기혼, 직급이 높을수록, 총 임상 근무경력이 길수록,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정신과 근무경력이 길수록 정신간호역량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17]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연령, 종교가 있는 일반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20]와 책임간호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정신간호사의 간호역량이 높다는 연구[9]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와 총 임상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정신과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 경우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이 높다는 오혜린의 연구[17]에서 경력기준은 다르지만 일치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경험이 많고, 안정된 결혼상태와 종교를 가진 상태에서 임상 근무경력이 많은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자율적 업무와 권위가 증가한 상태에서 정신과 근무경력이 많고,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높고 대상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신간호를 수행하게 되므로 정신간호역량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종교,

교육정도, 간호직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종교가 있는 경우, 석사 이상, 간호직 만족도는 만족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있는 경우[33], 학력이 높을수록[21,22] 간호직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1,29]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있는 경우 가치관에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로 지적 욕구가 충족되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간호직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업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21]. 정신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신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성과는 결혼상태, 직급, 총 임상 근무경력, 정신과 근무경력,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간호직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기혼인 경우,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 이상, 총 임상 근무경력 15년 이상, 정신과 근무경력 15년 이상,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간호직 만족도가 만족인 경우 간호업무성과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인 경우[25,29], 직급이 높을수록[15], 총 임상 근무경력이 길수록[15,29], 정신과 근무경력이 길수록[25] 간호업무성과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정신간호사가 기혼일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심리적 안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간호업무에 집중하면서 효율적인 간호가 이루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간호사보다 직책이 높은 책임간호사나 수간호사일수록 지속적인 훈련과 경력의 축적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직무 몰입이 높아 업무처리가 전문화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장기간의 임상경력을 통해 획득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기술이 향상되므로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재직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재직의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상방안을 모색하고 간호사의 복지와 조직의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역량은 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성과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함께 다룬 연구를 찾을 수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정신간호역량 중 필수요소인 공감역량과 간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25]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리고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 자기효능감과 간호업무성과 또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와 관련이 높은 변수임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간호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자기효능감, 정신간호역량이었다. 즉 정신간호역량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정신간호역량과 유사개념인 공감역량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오희숙 및 위휘의 연구[29]와 한아름 및 권수혜의 연구[30]에서도 자기효능감이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정신간호역량이 높을수록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경력이 쌓여 임상현장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자신감을 터득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34].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정신간호역량이 간호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정신간호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간호에 임할 수 있는 조직의 분위기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21]과 정신간호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근거기반의 실무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업무성과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호업무성과는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간호업무성과에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정신간호역량, 자기효능감으로 나

타났다.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로 정신간호사의 정신건강관리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신간호사가 간호업무성과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하여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을 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병원 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정신간호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간호에 임할 수 있는 조직의 분위기와 환경을 구축하고 정신간호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근거기반의 실무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에 신중한 해석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후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신간호사의 정신간호역량과 자기효능감 외에도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긍정적인 간호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S. Y. Park(2018). Influences of Professional Autonomy, Communication Competency on Job Satisfaction of Psychiatric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5(3), 232-239. DOI: https://doi.org/10.22705/jkashcn.2018.25.3.232

[2] H. S. Kang. Y. Y. Kim(2016). Influence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tress coping on Turnover Intention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141-151.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141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21).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202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ceived from: http://www.mohw.go.kr

[4] M. J. Kang(2015). Effects of Enneagram Program for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GAF in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4(2), 116-126. DOI: http://doi.org/10.12934/jkpmhn.2015.24.2.116

[5] Hoffman, M. L.(2001).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D. W. Lee. S. J. Kim(2017). The Effects of Group Motivational Interviewing Compliance Therapy on Drug Attitude, Medicine Application Self-efficacy and Medicine Application in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6(4), 391-401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4.391

[7] K. J. Lee. H. J., Park. S. S. Kim(2014).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unseling Self-Efficacy and Empathy of Psychiatric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Health & Nursing,* 26(1), 9-19.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261435

[8] Rutledge, D. N., Wickman, M. E., Cacciata, M., Winokur, E. J., Loucks, J., & Drake, D.(2013). Hospital staff nurse perceptions of competency to care for patients with psychiatric or behavioral health concerns. *Journal for Nurses in Professional Development,* 29(5), 255-262. https://journals.lww.com/jnsdonline/abstract/2013/09000/hospital_staff_nurse_perceptions_of_competency_to.8.aspx#:~:text=DOI%3A%2010.1097/01.NND.0000433150.18384.1c

[9] J. W., Han. H. N. Lee. H. Y. Woo(2016). A Study on Behavior Health Care Competency between Psychiatric Ward Nurse and General ward Nurs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188-19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9.188

[10] Y. J. Son. Y. A Lee. K. N. Sim. S. S. Kong. Y. S. Park(2013)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Burnout on Nursing Performance of Intensive Care Units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3), 278-288. DOI: https://doi.org/10.7739/jkafn.2013.20.3.278

[11] Soo, Yang. Gyung Joo, Lee. Sook Ja, Yu(2002). Self-evaluative Awareness of Problem Solving Ability In Psychiatric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6(2), 378-387.

[12] G. H. Kim. Y. B. Cho(2011). Effector of the Kitchen and Job Environment to Attitude of Job Performance in Hotel Employee for Cooking.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15(3), 265-287.

[13] H. S. Jeong(2021). *The Effect of Nursing Capacity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Nam Bu University, Gwangju.

[14] H. S. Oh, H. Wee(2016). Self 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Customer Orientation and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in Local Public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2(5), 507-517.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5.507

[15] N. S. Ha. J. Choi(2010). An Analysis of Nursing Competency affecting on Job Satisfaction and Nursing Performance among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6(3), 286-294.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0.16.3.286

[16] Hampton, G. M., & Hampton, D. I. (2004). Relationship of professionalism, rewards, market orient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The case of certified nurse-midwiv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7(9): 1042-1053.

[17] H. R. Oh.(2020). *Effect of Mental Health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on Mental Health Nursing Competency :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Master's thesis, In Je University, Gyeongsangnam-do.

[18]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19] S. M. Lee, J. S. Yun. S. H. Shin(2022). Effects of Nurses'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Patient,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and Nursing Work Stress on Burnout of Nurses in General Ward.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8(1), 31-40.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22.28.1.31

[20] M. Y. Jang, S. H. Shin(2017). Care Burden for Mental Illness Patients,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and Psychiatric Nursing Competency in Non-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6(1), 55-66.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1.55

[21] H. J. Kim, J. Y. Bae(2014). A The Degree of Job Stress,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6(2), 21-32.

[22] J. M. Yoon(2017).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in Psychiatric Nurses.* Master's thesis, Gong Ju University, Chungcheongnam-do.

[23] K. A, Lee(2015). *The Effect of Nurses' Self-Efficacy, Work Stress and Coping Type on Mental Health.* Master's thesis, Nam Bu University, Gwangju.

[24] M. R. Son, S. H. Kim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Nursing Performance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9(2), 177-184.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20.29.2.177

[25] E. K. Lee(2020). I*mpact of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Compassion Competence on Nursing Performance among Mental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Han Sei University, Gyeonggi-Do..

[26] A. S. Jung.(2007).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a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elf-efficacy in General Hospital nurse.* Master's thesis, Han yang University, Seoul.

[27] H. J. Yoo. Y. H. Cho(2022). The influence of Psychiatric Nurse's Awareness of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and Job Satisfaction on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5), 381-38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2.13.05.381

[28] Y. K. Ko. T. W. Lee. J. Y. Lim(2007).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Measurement Scale for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3), 286-294.
DOI: https://doi.org/10.4040/jkan.2007.37.3.286

[29] H. S. Gong. H. Wee(2021). Effects of clinical nursing characte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erformance. *Korean J Health Commun,* 16(2), 135-146.
DOI: https://doi.org/10.15715/kjhcom.2021.16.2.135

[30] A L. Han. S. H. Kwon(2016).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erformance of Nurse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8(1), 12-21.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6.18.1.12

[31] E. H. Oh., B. Y. Chung(2011). The Effect of Empowerment on N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4), 391-401.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4.391

[32] Rice, E.(2015). Predictors of successful clinical performance in associate degree nursing student. *Nurse Education,* 40(4), 207-211.

[33] N. H. Lee(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of Psychiatric Nurses, Job Stress and Burnout. *Health & Nursing,* 23(2), 47-59.

[34] A. S. Lee(200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urses'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Won Kwang University, Jeollabuk-do.

조 미 애(Mi-Ae Jo) [정회원]

- 2022년 2월 : 남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정신건강간호사 1급
- 2018년 2월 : 중독정신간호사 1급
- 2003년 ~ 현재 : 영광기독신하병원

〈관심분야〉
정신간호, 노인간호

권 진 희(Jin Hee Kwon) [정회원]

- 2018년 2월 : 남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석사)
- 2022년 8월 : 남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
- 2021년 3월 ~ 2023년 2월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3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성인간호, 노인간호, 기본간호